진흥건설 법정관리 신청…지역 건설업 '휘청'

관급공사 수주물량 급감·백마산 특혜의혹 타격
유동성 어려운 홀리데이인호텔 매각 가능성
관급업체 줄줄이 경영난…광주 산업구조 재편 필요

광주 서구에 '홀리데이인 호텔'을 운영중인 중견건설업체 진흥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남광건설에 이어 진흥건설마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관급공사에 주력하던 업체들이 연이어 쓰러지면서 건설업 비중이 높은 광주의 산업구조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진흥건설㈜(대표 임광택)은 지난달 6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현장검증을 벌인 뒤 다음달 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채무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1991년 설립된 진흥건설㈜은 관급공사를 주력으로 성장했다. 2006년엔 시공능력평가액 395억원을 기록, 광주 12위·전국 371위권의 업체로 몸집을 불렸다. 5년 전엔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립, 광주에서 두 번째로 특급호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관급공사 발주 감소로 수주물량이 크게 줄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특혜의혹까지 받으며 타격을 입었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144억6000만원으로, 광주에선 37위, 전국 1667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주력으로 하던 업체들은 수주물량 감소에 수익률마저 줄어들면서 수년 사이 경영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며 "진흥건설도 타격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 1000억원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하던 남광건설(광주 5위권)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역 건설업계에 충격을 안겼으며 앞서 2010년에도 전국 기준 시평액 100위권이던 금광기업이 관급공사 물량 감소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관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전남도회 등 지역 건설업계는 매년 적정공사비 보장과 공사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광주의 건설업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은데다 관급공사에 대한 경쟁이 심하다 보니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구조를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업체들은 건설업 외의 진로 모색 등 살아남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건설은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시설과 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나진~소라간 확·포장 터널공사 등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 규모가 적은 만큼 다행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생을 위해 홀리데이인 호텔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11일 군산산업단지 내 군장에너지(주)를 방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군산산단 찾아 '현장소통'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1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군산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 청장은 이어 군산산업단지 현장을 들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 청장은 이날 군산세무서에서, 올 상반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것을 비롯해 그 어느 해 보다 근무여건이 어려웠음에도 현안 업무를 무리없이 잘 마무리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만을 느끼기 전에 개선하는 등 사전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청장은 이어 군산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인 군장에너지(주)를 방문, 최근 경기침체와 시설투자 확장으로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관계자를 면담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신 청장은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전남 나들가게 9곳
"생필품 50% 싸게 사세요"

광주·전남지역 나들가게 9곳이 13일부터 일주일 간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가격에 판매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33개 지역에서 초특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나들가게 지역별 공동 세일전'을 13일부터 시범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일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나들가게연합회가 마련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라면과 과자, 음료 등 80여개 공산품 및 정육·수산·청과·채소 20여개 품목이 세일가격에 판매된다.

최창우 전국나들가게연합회 회장은 "나들가게 점주 스스로 상생발전을 위해 아이디어와 힘을 모았다"며 "이번 시범행사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추석시즌을 맞아 전국 공동 세일전을 추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세일전을 시행하는 점포는 ▲신창코사(광산구 수등로) ▲뉴스코마트(북구 서양로) ▲블루밍(북구 운암동) ▲열린마트(서구 풍암동) ▲웰빙마트(서구 화정동) ▲임동마트(북구 임동) ▲지산마트(북구 양산택지로) ▲한울마트(북구 오치동) 등 8곳이다. 전남에선 고려종합물류마트(나주 남외 1길) 1곳이 세일전에 들어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마켓의 경영현대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

여름엔 '사랑의 열무김치' 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삼성전자와 직원 및 적십자 봉사원 200여 명이 '삼성전자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8000㎏의 열무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열무김치는 광주·전남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현대차,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상은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 명이다.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사원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 전 직원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중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측에서 임금피크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지만 다른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현대차그룹도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임금피크제 전 계열사 도입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년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계열사별로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추가로 연간 1000개 이상의 청년고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 2000선 붕괴

中 위완화 평가절하 충격 16.52P 내려 1986.65

코스피가 11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부담으로 끝내 심리적 저항선인 20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52포인트(0.82%) 내린 1986.65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16일(1987.33)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상승 마감 등에 영향을 받아 16.98포인트(0.85%) 오른 2,020.15로 개장한 뒤 오름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장중 전해진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다.

중국 인민은행 외환교역센터는 이날 오전 달러·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 10일 고시환율인 6.1162위안보다 1.86% 상승한 수치인데, 이 같은 위안화 가치 하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7%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위안화의 약세는 안 그래도 이리저리 치이는 한국 수출주의 가격 경쟁력에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인의 소비력과 구매력에 떨어지는 점도 중국 소비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86.65 (-16.52)
▼금리 (국고채 3년) 1.74% (-0.03)
▼코스닥 732.26 (-14.08)
▲환율 (USD) 1179.10원 (+15.90)